2026년 1월 8일 | 산업분석

자동차 이슈 코멘트

자동차 업종의 로봇 모멘텀에 대한 단상

Overweight

로봇 모멘텀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흐름

최근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 동인으로서 로봇 모멘텀이 강하다. 자동차 업종의 로봇 모멘텀과 관련한 하나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의 인식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2배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산업 노동인구의 20% 대체 및 글로벌 가구당 1대의 로봇 배치를 가정한 것이다.

2. 해당 규모까지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술발전 속도와 국가별 수용 속도 등에 연동하면서 장기적이겠지만(ex. 자동차 산업은 100년 걸림), 최근 빨라진 기계/IT/AI 기술의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시장의 개화 시기는 멀지 않았다.

3. 현 시점에서 기술 수준, 시장 규모, 생산/판매 밸류체인 등을 모두 감안할 때, 글로벌 로봇 산업의 패권은 미국-중국이라는 양 진영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4.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를 감안할 때, 양 진영의 생산/판매 밸류체인이 상호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로봇 산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한국의 생산 밸류체인들에게는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5.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계 및 이동성 기술에 대한 이해와 생산 능력(원재료 수급/가공, 부품/시스템 제조, 원가/생산 관리 등),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생산시설/밸류체인 등을 활용하여 로봇 산업에서의 기회 요인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6. 또한, 로봇 기술을 발전시킬 때 필수적인 산업 노동에 대한 데이터 소스로서 자동차 공장들이 가진 이점도 상당하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체계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로봇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도 하다.

7.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 생산규모 420만대와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규모 730만대를 갖춘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거대한 산업 기반으로 로봇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브라운필드 전략을 구현하기 용이하다.

8. 자동차 주식들은 자동차 산업이 가진 저성장(연평균 물량 증가율 +2% 전후)으로 낮은 Valuation을 적용 받아왔다. 로봇이라고 하는 대규모 성장 산업의 부상과 이에 따른 기회는 기존 Legacy로 인식되던 자동차 산업의 자산을 재평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9. 현재 로봇이라는 테마가 일부 업체들에게는 주가 버블성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목격된다.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의 버블은 우수 인력과 자금의 유입을 통해 산업 성장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 향후 핵심 수혜 업체들과 비핵심 수혜 업체들로 차별화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개별 기업의 목표가는 추후 재조정할 계획).

10. 2026년 중 산업(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 유니트리 상장, 미국의 로봇 지원 등) 및 현대차그룹 내 로봇 모멘텀(RMAC/아틀라스/SDV 등) 자체는 강화될 것이다. 단기로 상업화 속도 대비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평가 및 주가 동력의 요인이다.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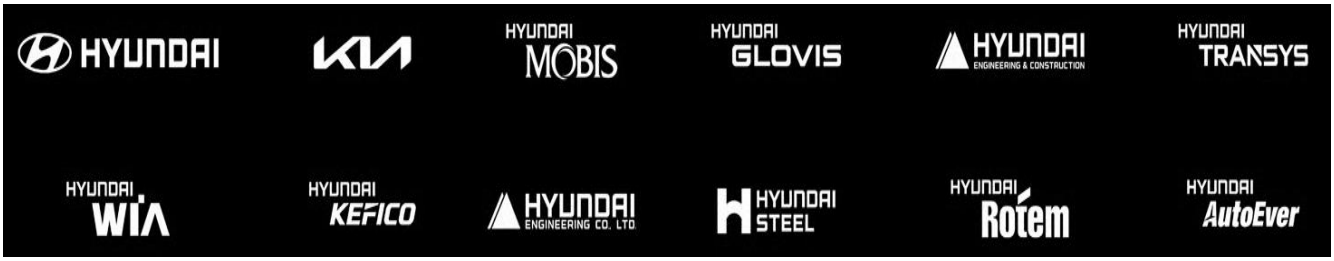
도표 1. BD의 Atlas 연구형(Prototype) 모델

자료: 현대차그룹

도표 2. BD의 Atlas 개별형(Product) 모델

자료: 현대차그룹

도표 3. 현대차그룹 내 로봇 관련 협업 가능 회사들



자료: 현대차그룹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1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2026년 1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3%	4.27%	0.00%	100%

* 기준일: 2026년 01월 04일